

> RP(Repurchase Agreement) 개요

> RP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로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채권을 팔고, 경과기간에 따라 확정수익률을 계산하여 금융기관이 되사는 방식의 매매거래입니다.

> RP 거래구조



RP는 되사는 조건을 붙인 채권

환매조건부채권은 흔히 RP(Repo, RePurchase agreement)라고 부른다. 발행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환매'(還買)란 도로 사들인다는 뜻, '환매조건부'란 '되사는 조건을 붙인다'는 얘기다.

채권이란 돈이 필요한 거래자가 남에게서 돈을 빌리는 대신 발행해 건네주는 '채무증서'(debt instrument)다.

상환만기도 미리 정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도 주기로 약속하고 발행하는 일종의 빚 문서다. 다만, 여느 빚 문서와는 다르다.

보통 빚 문서는 '차용증서'라고 부른다. 차용증서는 직접 돈을 융통한 거래자 사이에서만 법적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매매가 되지 않지만, 채권은 매매할 수 있다.

↑ '수행' 책임 존재함

↓ '수행' 책임 존재하지 않음

채권은 누가 갖고 있든 상관없이 만기가 되면 발행자로부터 약속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게다가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는 시간 차이를 근거로 유동성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 사이에 값이 매겨져 매매되고, 매매되면서 수시로 가격이 변하므로 매매 차익을 노린 투자 수단으로 널리 유통된다. 채권은 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것이든 환매 조건을 붙여 발행하면 환매조건부채권, 곧 RP가 된다.

금융기관, 단기자금 융통 위해 RP 거래

금융시장에서 RP를 발행·매매하는 거래자는 주로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이다. 금융기관이 RP를 거래하는 이유는 보유 채권을 활용해 단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다. 채권은 발행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이자도 받고 상환만기가 되면 원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데다 보통 거래 단위가 크고 만기가 길다. 때문에 금융기관처럼 거액을 거래하는 입장에서는 채권이 비교적 안전하게 장기 투자하는 데 적합한 금융수단이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평소 채권을 많이 사서 장기 보유한다. 문제는 단기적으로 현금이 필요할 때다. 채권은 만기 전에도 매매가 가능하므로 보유 채권을 팔면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만기 보유에 따른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싶지 않다면? 채권을 RP로 매매하면 보유 채권을 팔지 않고도 필요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 RP는 보통 환매 만기를 한 달(1개월물) 혹은 석 달(3개월물)로 정해 거래한다. 그러므로 한 달 혹은 석 달 뒤 되사는 조건으로 일단 보유 채권을 넘겨 자금을 마련한 다음 RP 환매 만기 때 RP 보유자에게서 채권을 되사오는 것이다. 채권을 되살 때는 원금은 물론 RP 발행 후 환매까지 기간에 따라 확정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내줘야 한다. 이처럼 보유 채권을 만기 전에 팔지 않고도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단기 자금 수요 해결책으로 RP 매매를 즐긴다.

금융기관뿐 아니라 채권 매수자 입장에서도 RP 매매는 단기 여유 자금 굴리기에 좋다. 보통 단기 자금거래에서는 장기 자금거래와 달리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잡기 어려운데 RP를 사들이면 채권을 담보로 잡고 자금을 빌려주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RP는 사 두었다가 한 달 혹은 석 달 뒤 도로 팔 수 있으므로 그 자체가 담보 역할을 하고, 그만큼 단기 여유 자금을 비교적 안전하게 굴릴 수 있다.